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설명절 맞이 농지 이양은퇴직불사업 등 '집중 홍보'

홍승태 기자 | 승인 2026.02.12 16:05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본부장 김경한)는 12일 설 명절을 맞아 청주육거리시장을 방문해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 등 농지은행사업 대면 홍보를 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본부 임직원들이 시장 방문객들에게 사업안내문과 홍보물품을 나눠주며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개선사항인 '농업인 임대위탁수수료 폐지'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은 영농은퇴를 희망하는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에 매도할 경우, 최장 10년간 직불금을 지급해 노후소득 안정을 돕는 제도이다.

특히 고령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제공하고, 이양된 농지는 청년농업인에게 우선 공급함으로써 농촌의 세대교체와 활력을 유도한다.

김 본부장은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방문한 귀성객들이 부모님의 노후 소득에 큰 힘이 되는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며 "올해 수수료 폐지로 농업인 소득 보전 혜택이 강화된 만큼, 이번 명절이 가족과 함께 안정적인 노후설계를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홍승태 기자 hongst1125@dynews.co.kr



홍승태 기자 hongst1125@dynews.co.kr